

- 주요 뉴스: 미국 달러화 강세,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
  - ECB 총재, 중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하회를 예상
  - 중국 10월 산업생산과 소매매출, 모두 예상치 상회. 부동산 부문 부진은 지속
  - 일본 3/4분기 성장률(속보치, 연율), -3.0%로 예상치 하회. 경기부양책 기대는 고조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

**주가[+0.0%], 달러화 강세[+0.4%], 금리 상승[+5bp]**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은행주 강세와 빅테크 약세 등이 상충하며 보합 마감  
유로 Stoxx600 지수는 ECB의 통화정책 완화 지속 전망 등으로 0.4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10월 소매매출 기대 등으로 16개월래 최고 수준  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7%, 0.2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3주래 최고치  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연동하며 3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3.9원, +4.4원) 0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|    |      | 11/15일  | 11/12일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11/15일  | 11/12일  | 전일대비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4,682.8 | 4,682.9 | 0.00% 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1.61%   | 1.56%   | 5bp    |
|    | 유럽   | 488.43  | 486.75  | 0.35% 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-0.23%  | -0.26%  | 3bp    |
|    | 중국   | 3,533.3 | 3,539.1 | -0.16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19bp    | 19bp    | 0bp    |
|    | 일본   | 29,777  | 29,610  | 0.56%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52bp    | 52bp    | 0bp    |
|    | 한국   | 2,999.5 | 2,968.8 | 1.03% 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-       | 371     | -  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95.50   | 95.13   | 0.39%  |                 | VIX   | 16.49   | 16.29   | 1.23%  |
|    | 유로화  | 1.1368  | 1.1445  | -0.67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80.88   | 80.79   | 0.11%  |
|    | 엔화   | 114.12  | 113.89  | -0.20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40.9   | 445.0   | -0.91% |
|    | 위안화  | 6.3831  | 6.3797  | -0.05%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862.8 | 1,864.9 | -0.11% |
|    | 원화   | 1,178.4 | 1,179.6 | 0.10%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미국 달러화 강세,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

-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이 확실시. 이에 11/15일(현지시각) 달러화지수는 16개월 만에 최고치. HSBC, 씨티 등 다수의 투자은행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지수의 추가 상승을 예상
- 일부에서는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, 금리인상 기대 등을 반영하면 지금이 달러화 강세의 초기 국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. 이와 같은 달러화 강세 기대 등으로 미국 국채, 주식 등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
- 반면 달러화 부채가 많은 신흥국은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. UBS의 Tilmann Kolb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과 중국의 성장둔화로 다수의 신흥국이 선진국과 같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미국의 전 지역 연은 총재, 기준금리는 3%까지 상승 가능

-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내년 6월부터 인상이 시작되고,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며 3~4%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. 래커 전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기준금리가 3.5~4%까지 오르고 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

### ■ 모건 스탠리, 내년 미국 S&P500 지수는 현 수준보다 5% 하락할 것으로 예상

- S&P500 지수는 이익성장 둔화 및 금리상승 등으로 2022년 말에 440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며 비중축소를 권고. 기업이익 관점에서 내년 유럽 및 일본 증시를 유망 투자처로 평가했으며, 신흥국 증시는 중립 의견을 제시

### ■ ECB 총재, 중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(2%) 하회를 예상

- 라가르드 총재는 경기가 회복되고 공급 병목 등이 해소되면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물가상승 압력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. 내년 임금상승은 금년 수준을 다소 넘어설 수 있으나 이에 따른 2차 효과의 위험 발생 가능성은 한정적이라고 평가
- 데 쿤도스 부총재는 공급 병목 등에 따른 성장 둔화와,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우려. 스페인 중앙은행 데코스 총재는 내년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언

### ■ 영란은행 총재, 인플레이션 상황을 매우 우려

- 베일리 총재는 영란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지만, 당시 통화위원들은 각각 금리인상 혹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 매우 팽팽했다고 언급. 금리인상 판단은 추가적인 노동시장 지표를 확인한 후에 좀 더 명확해진다고 첨언

### ■ 중국 10월 산업생산과 소매매출, 모두 예상치 상회. 부동산 부문 부진은 지속

- 같은 달 산업생산과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3.5%, 4.9% 늘어 각각 전월(3.1%, 4.4%) 및 예상치(3.0%, 3.5%)를 상회. 반면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비 0.25% 하락. 1~9월 부동산 투자도 전년동기비 7.2% 늘어 전년동기(8.8%) 대비 둔화
-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코로나 19 여파 지속으로 금년 말까지 성장 둔화를 예상. Oxford의 Louis Kuijs 또한 부동산 부문 침체 등으로 10월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

### ■ 일본 3/4분기 성장률(속보치, 연율), -3.0%로 예상치(-0.8%) 하회. 경기부양책 기대는 고조

- 내각부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자동차 생산이 부진했던 것에 기인. Mitsubishi의 신이치로 고바야시는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기시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장 예상보다 대규모일 수 있다고 평가

### ■ 일본은행 총재, 내년 물가상승률이 1%가 되어도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방침

- 구로다 총재는 내년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이 1%까지 상승해도 목표(2%)와는 괴리는 여전히 크다고 지적. 이에 소비주도 성장을 위해 강력한 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1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: 30.9, 10월(19.8), 예상치(21.6)
- 유로존 9월 무역수지(억유로): 73, 8월(241), 예상치(-)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,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 강연
- 미국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, 10월 소매매출, 산업생산, 유로존 3/4분기 성장률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### ■ 미국 장기 채권가격, 연준의 주장보다 빠른 금리인상과 성장 둔화를 시사 - WSJ

(Market Bets on a Fed Interest-Rate Mistake)

- 11월 FOMC 이후 연준 인사들은 대부분 내년 1회의 0.25%p 금리인상 가능성에 의견을 수렴. 하지만 금리선물에 따른 시장 예측은 0.5%p 인상 확률을 83%로 제시. 0.75%p 인상 확률도 54%로 상당히 높은 편
-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.56%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, 점도표에 따르면, 연준은 2024년 정책금리가 1.75%로 상승하고, 장기적으로 2.5%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. 낮은 장기 국채금리는 금리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

### ■ 마중 정상회담, 무역관계 회복을 위해 양국은 현 관세장벽을 낮출 필요 - 블룸버그

(The U.S. and China Must Consign Trump's Trade Deal to History)

-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어진 1단계 합의(Phase One Agreement) 이후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목표치의 60%를 하회. 또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 내 미국 기업들 가운데 미국 본토로 생산시설을 이전시키겠다는 기업이 전무. 이에 무역장벽 효과도 약화
- 이에 미국은 글로벌 공급 병목에 의한 고물가를 해결하고 양국 간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금년 12월 만료되는 1단계 합의를 고수하기보다 양국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

### ■ 중국 경제, 내수 부진 등으로 향후 수개월 간 성장 둔화 가능성 - WSJ

(China's Growth Hasn't Bottomed Yet)

### ■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, 공급 병목보다 대규모 수요 급증 - Financial Times

(Maybe bottlenecks are not the problem)

### ■ 연준, 일시적 물가상승 등 희망적 기대에 따른 정책 수립은 위험 - 블룸버그

(Federal Reserve Put Itself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[jsjeong@kcif.or.kr](mailto:jsjeong@kcif.or.kr)